

[기획]

광주일보·전남대 문화예술사업단 공동기획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회사원이자던 남편 결혼하고 보니 '농사일'

지난달 30일 나주에서 만난 웅텐티(27·가명)씨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고향 베트남에서 생각했던 한국생활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신의 결혼을 주선한 결혼정보업체 직원만 생각하던 지금도 울화가 치민다.

웅텐티씨는 "결혼 전 정보업체 직원의 말과는 달리 집에서 농사일을 뜯기만 하라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로 인해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남편이나 한국 농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았더라도 한국행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국제결혼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으로 온 이주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정보부족과 결혼정보업체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한국의 문화나 배우자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국제결혼을 택하면서 예상치 못한 각종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면접자 1천63명 가운데 13%가 결혼 전에 들었던 배우자의 정보가 사실과 달랐다고 대답했다. 항목별로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 불일치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성격(32%) ▲직업(27.2%) ▲생활습관(27%) ▲소득(26%) 등의 순이었다.

또 결혼 방법별로는 결혼중개업체의 정보 불일치가 25.8%로 가장 높았고, ▲스스로(9.9%) ▲가족이나 친구 소개(9.3%) ▲중고기관(7.9%) 등으로, 정보업체의 정보왜곡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경우 10명 중 3명이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달랐다고 응답한 반면 '정보가 일치했다'는 대답은 41%에 그쳤다. 전체 이주여성의 절반 이상이 '정보 부재'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베트남은 전체 이주여성의 70%가량이 정보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업체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소개서보다 10살 많은 경우도

중개업체 거짓 정보에 속아

결혼 적응 못하고 잇단 파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에 진출한 일부 정보업체는 한국에서는 농업이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말하다가 하면 한국의 생활수준을 TV드라마나 영화 속에 비추진 모습으로 소개하면서 이혼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남편의 경우도 비슷하다. 한국인 남편의 경우 전체 응답자 1천81명 가운데 결혼 전 배우자의 정보가 일치했다는 응답이 72%에 그쳤다. 또 정보업체를 통한 경우 정보일치도가 66%로 낮게 나타났으며, 정보업체를 통한 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 부인의 경우 63%까지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무자격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경찰로부터 사법처리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9월에는 농촌총각 10여명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들과 미팅을 하다가 현지 공안당국에 의해서 검거되기도 했다. 베트남에선 현지정부가 인정하는 여성위원회와 교류 협력을 체결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제2부 '남몰래 흐느끼는 그녀들'

<11> 못 믿을 결혼정보업체들

결혼소개와 결혼중매는 불법이다.

계약결혼이나 위장결혼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상당수 정보업체들이 성혼율을 높이기 위해 허위·과대 정보를 제공하는가 하면 일부업체는 계약·위장결혼 등 불법결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혼률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외국인 부인과의 이혼은 총 2천444건에 달한다. 이는 1년 전인 2004년(1천611건)보다 52% 급증한 것으로, 부인의 국적별로는 ▲중국(58.6%) ▲베트남(11.8%) ▲일본(6.9%) ▲필리핀(5.8)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여성과의 이혼률이 높은 것은 타국에 비해 결혼 누적건수가 높기도 하지만 계약결혼이나 위장결혼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외국인 분만 현황' 조사 결과 지난 2003~2005년의 국제결혼 대비 분만 건수는 31%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중국출신 여성의 분만율은 15.9%로, 전체 결혼 건수에 비해 자녀 출산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허위결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여성인권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제결혼정보업에 대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의 김춘진 의원이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허가제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제결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유희순씨의 국제결혼 성공기



국제결혼에 성공한 유희순(왼쪽)씨가 우즈베키스탄 출신 부인 채연나씨와 함께 세 아이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국제결혼 당시 현지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본 것이 행복의 열쇠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03년 국제결혼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신부를 맞이한 유희순(40)씨. 유씨는 최근 늦은 결혼 재미에 푹 빠져 있다. 부인 채연나(24)씨가 최근 넷째 아이를 임신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법무부로부터 귀화증서를 받는 등 울퉁불퉁한 결혼생활을 맞고 있다.

노총각 유씨가 결혼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씨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인터넷에 재미를 붙인 것이 부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 건설현장 일용직과 자동차 도색 등에 종사했던 유씨는 퇴근 후 온라인에 등록된 결혼정보업체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했다.

이후 유씨는 고심 끝에 현지의 중개업소를 선택한 뒤 5명의 일행과 우즈베키스탄 '원정'에 나섰다. 당시

"국제결혼정보업체

사전에 꼼꼼히 따진게

행복의 열쇠 됐어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유씨 일행 외에도 3~4개의 팀이 결혼을 중개했으나 결혼에 성공한 팀은 유씨 일행밖에 없었다.

대부분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중개업소의 실적과 달랐거나 상황 마다 추가 비용이 요구하는 등 현지 브로커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중매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씨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김모(48)씨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귀국하자마자 부인이 가출하는 바람에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씨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과 결혼하려면 사전에 계약한 중개료 외에도 400만~500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다"며 "인터넷을 통해 현지 정부와의 교류협약 여부 등을 1년 이상 살펴보고서 업소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한 것이 결혼에 성공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우리처럼 한국사람 되세요"

최근 국제결혼을 둘러싼 일부 결혼정보업체의 허위·과대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극에 달하면서 이주여성들의 한국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외국인 신부들과 가족들이 지난달 27일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 증서를 받은 뒤 활짝 웃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대인동상업부동산
(주)대인동상업부동산
☎(02)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
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
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
안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공인중개사
☎(02)383-5221
건물투자
모텔매매
상가투자(상무지구)
사무실(상무지구)
기타투자
생산지지

정우부동산
☎(02)675-4788
건물매도
토지매매
임야매매
생산지지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02)233-0311~3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농업보호구역
시설물:파이프비닐하우스
600평(300평×2)
전기시설 설치(16KW)
전화 설치됨
절반이상 녹지식재(3년)

첨단월계공인중개사
☎(02)972-4585
급매매
첨단삼동
첨단인근 30m도로점
1000평 공장 창고부지적합
첨단중심 상업매매
첨단 원룸 건물급매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건물
땅
주유소 전문중개
공공급매
임대
병원부지 전문중개

알파공인중개사
☎(02)974-0229
상업용건물
토지매매
골프연습장 부지
양산동 상업용지

세하늘세상공인중개사
☎430-8118
월수익 2천만원 정도라면
12억5천정도 투자하고
실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